

동국대 불교대학 '21세기형 불교학 산실'로 전문대학원·문화센터 추진

발전위, 중장기案 발표

동국대 불교대학이 '21세기형 불교학 산실'로 거듭난다. 동국대 불교대학 2기 불교대학발전연구위원회(위원장 보광 스님, 이하 발전위)는



◇동국대 불교대학이 21세기형 불교학 산실로 거듭나기 위한 중 장기 발전안을 마련했다. 사진은 지난해 6월 5일 열린 불교대학 발전을 위한 공청회 장면.

5일 기자회견을 갖고 2년여 동안 분야별 연구와 공청회 등을 통해 최종 확정된 '불교대학 중장기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이 가운데 가장 눈길을 끄는 대목은 불교전문대학원 '불교사회문화전문대학원(가칭)'과 사이버대학 불교학부 설립 그리고 한문·영어 졸업시험제 실시 안이다.

이 중 불교사회문화대학원은 불교학, 문학, 사학, 철학을 기초로 2003년 설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와 관련 보광 스님은 "전문대학원은 무한 경쟁 시대에 핵심역량을 갖춘 전문직업 인력을 양성하고 기존 교육방식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현재의 특수대학

역량 갖춘 전문인력 양성... 2003년 설립 한자·영어 패스 의무화... 질 한단계 높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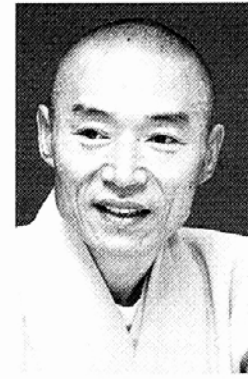
원인 불교대학원 폐지, 일반대학원의 동일 전공 분야 석사과정 통합(폐지), 전임교원 확보, 전용면적 등의 전제조건이 필요하다. 이에 대해 발전위는 사회복지 장래문화전공 등은 우선 겸임교수를 활용하고 전임교원을 추가 확보할 경우 교원확보에는 큰 어려움이 없다고 말한다. 또한 학생 정원 100명당 전용면적(360평)도 현재의 불교대학 사용 공간, 교수연구실 등을 배치할 경우 추가 수요공간을 크게 필요치 않다는 것이 발전위 측의 설명이다.

또한 한자능력 검정시험과 영어 시험을 패스해야 졸업할 수 있는 시험제도는 불교대학 학생들의 질적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는 제도로 평가되고 있다.

불교대학 중장기 발전방안은 크게 4분야로 나누어져 있다.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1분야 학부발전 연구분야위원장 법산 스님은 승려학생 증원 및 추천 입학제 확대, 군법사요원 추천입학제 시행(비구니스님들에 대한 여군법사 제도도 추진) 등, 2분야 교과과정 연구분야위원장 조용길 교수는 학과 교수를 학부교수로 통합, 전공학점 60학점으로 조정, 학과별 시대에 맞는 전공영역 재 정립 등을 방안을 마련했다. 또한 3분야 교수 및 연구기관 진흥분야위원장 권기중 교수는 역경원, 출판사, 불교문화연구원 등을 통합한 불교문화센터 신설, 한국

"중단 각종선거 올 집중 청정풍토 정착에 주력"

창립 10돌 실천불교승가회 의장 청화 스님



92년 승가중심 사회민주화 운동의 깃발을 세웠던 실천불교전국승가회(의장 청화, 이하 실천승가회)가 창립 10주년을 맞았다. 창립기념일이 원래 10월 1일이지만 미리

올해에는 청정승가다운 선거 풍토를 정착시킬 수 있는 제도적 보완에 주력할 예정이다. 중단선거법 보완작업이 필요하다. 선거공영제 도입과 선거 과정이 종책에 대한 토론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종책위원회를 중심으로 대중의 의견을 모아 중앙총회에 청원하는 방법 등을 모색하고 있다.

◆불교NGO 회관을 건립한다는 계획은

"NGO회관 건립은 올해부터 5개년 계획으로 추진된다. 이 사업은 한국불교발전과 정토사회 구현을 위한 장에서 사부대중과 함께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다. 또 열악한 환경에서 활동하는 교계 단체들의 안정적인 활동공간을 제공해 주기 위한 사업이기도 하다. 27일 열리는 '창립 10주년 기념 및 회

5년 계획 불교NGO회관 건립

승려노후복지정책 수립할 터

앞망겨 오는 27일 창립10주년 기념 및 회관건립기금 마련을 위한 서예도예전'을 갖는다. 실천승가회는 94년 조계종개혁신을 주도하는 등 인권·통일 사회운동을 펼치며 종책 연구 개발에 앞장서 온 승가단체. 92년 실천승가회 창립 주역이며 이후 10년간 대표를 맡고 있는 조계종 종회 부의장 청화스님을 만나 불교NGO 회관 건립, 선거공영제 도입, 승려노후복지제도 마련 등 실천승가회의 올 사업 계획을 들었다.

◆실천승가회 10년을 평가한다면. "실천승가회는 정토사회구현과 중단개혁을 목적으로 92년 창립됐다. 지난 10년간 200여 회원 스님들과 중단 스님들의 도움이 있었기에 수행을 통한 깨달음과 정토사회를 만들어가는 실천적인 노력이 본래 돌아 아니라는 부처님의 근본정신을 구현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본다."

◆10주년을 맞은 올해 실천불교승가회 사업 방향은

"올해는 중단발전을 위한 종책 생산과 추진에 역점을 둘 생각이다. 특히 각종 선거가 집중되어 있으므로

관건기금 마련을 위한 서화도예전'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기금마련에 들어갈 예정이다. 빠르면 2005년 경에 회관이 완공돼 교계 단체들에게 장소를 제공할 수 있을 것 같다."

◆승려노후복지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94년 중단개혁 이후 중단차원에 서도 관심을 보이고 있지만 재정의 한계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중단 현실에 바탕을 두고 단계적으로 제도를 입안하여 실시한다면 가능하다고 본다. 우선 승려복지제도에 대해 연구하고 이를 토대로 중단차원의 공론화 과정을 거칠 생각이다."

◆앞으로 실천승가회 활동방향은.

"한국불교의 미래를 밝혀줄 장기적인 과제인 중단개혁운동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것이다. 이를 위해 사부대중이 하나되는 원용중단의 큰 틀을 만드는 역사적 과제를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불자들이 함께 토론하고 실천하겠다. 이를 위해 실천불교운동의 이론화 작업과 종책에 대한 연구 개발 등도 꾸준히 진행될 것이다."

강유신 기자 shanmok@buddhapa.com

석굴암 모형관 장소 싸고 논란

석굴암 경내에 석굴암 모형관을 건립하는 문제가 논란을 빚고 있다.

문화재청과 불교사는 경주 토함산 석굴암에서 100m 아래 계곡에 실물 크기의 석굴암 모형이 포함된 석굴암 역사유물관 건립 계획을 추진. 지난해 10월 문화재위원회로부터 승인을 받았다. 석굴암 보존과 우리 가림막 때문에 보존불에 접근할 수 없는 참배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한다는

적인 의견수렴을 거쳐 문화재위원회에서 다시 이 문제를 논의키로 결정했다. 문화재청은 문제점을 지적해 온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 한편, 18일쯤 문화재위원회 위원과 문화재 전문가들을 초청해 현장 설명회를 갖고, 이 달 안으로 문화재위원회 회의를 열어 최종 입장을 밝힐 계획이다.

하지만 이 같은 의견 수렴 과정이 모형관 건립 자체의 전면 재검토는 아닌 것으

토함산 주변 환경 심각한 훼손우려

위치선정 재검토, 재질은 추후 논의

취지에서다. 『본지 356호 1면 참조

최근 이러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학계의 반대에 부딪히고 있다. 이상해(성균관대) 교수, 강우방(이화여대) 교수, 유홍준(명지대) 교수 등 문화재 전문가 10여 명이 지난 2일 가칭 '석굴암모형관 훼손방지 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석굴암 모형관 건립은 석굴암과 토함산 주변 환경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모형관 건립 저지에 나선 것이다.

논란이 계속 되자 문화재청은 5일 종합

로 보인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장소가 문제지 모형관 건립은 변함이 없다. 석굴암 주변 환경 훼손에 따른 논란이 가장 큰 만큼 위치 선정 재고를 위해 현장설명회를 열기로 했다. 재질 등은 추후 논의 사항이다"고 말했다. 저지대책위원장 이상해 교수는 "다른 장소라면 별 문제가 없다"는 뜻을 밝혔고, 대책위 소속의 강우방 교수는 "모형관이 들어설 현장을 직접 확인하기 전에는 뭐라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권원진 기자 jiny@buddhapa.com

조계종 통합중단 40돌 세미나

1962년 4월 11일 출범한 조계종 통합중단 40주년을 기념하는 학술 세미나와 법회가 4월 8일과 11일 각각 열린다. 또 통합중단 40년을 사진으로 볼 수 있는 기념 도록도 발간된다.

4월 8일 오후 2시 조계사 문화교육관에서 열리는 학술 세미나에서는 종법스님(중앙승가대 총장)이 '통합중단 출범의 성찰과 전망'을 주제로 기조발제를

주역과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주요 인물, 사건 등 중단의 업적을 기념할 만한 사진을 수록해 통합중단 출범의 역사적 의미와 현재까지의 발자취를 기록한 <사진으로 본 통합중단 40년사>를 4월 5일 발간한다.

이 책은 '한국근대불교의 전개와 조계종'(1876~1962) '통합중단 대한불교 조계종의 출범'(1962~1971) '중단의 시련,

4월 8일·11일 조계사 문화교육관서

사진으로 본 중단 40년사 발간도

하며, 김광식씨(대각사상 연구부장)가 '통합중단 출범의 역사적 의미'에 대해, 유승무 교수(중앙승가대 교수)가 '중단 3대 지표에 대한 성과와 전망'에 대해, 심익섭 교수(동국대 교수)가 '조계종단 운영구조와 종헌'에 대해 각각 주제발표를 한다. 또 각 주제발표에 대해 현고 스님(조계종 기획실장), 홍사성(불교방송 본부장)씨, 현승 스님(조계종 종회의원)이 토론자로 나선다.

이에 앞서 조계종은 통합중단 출범의

불교 중흥'(1971~1980) '중단의 민주화, 불교의 사회화'(1981~1993) '개혁중단의 성립과 발전'(1994~2002) 등 시대별로 구분하고, 중요 연표를 정리한 다음 분야별로 사진을 배열하고 간단한 설명을 곁들인다. 사진은 모두 1000여장 이상이 수록된다.

통합중단 40주년을 기념하는 법회는 4월 11일 오전 11시 조계사 대웅전에서 열릴 예정이다.

한명우 기자 mwhan@buddhapa.com

조상령 및 유산아 천도 49재 지장기도 법회

귀의삼보하옵고

불자님의 가정에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충만하여
항상 복된 나날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한국 제일의 생지장도량인 심원사에서는
조상령 및 유산아 천도 49일 기도 입재와 아울러
지장원불전 기공식을 봉행하오니 모두 동참하시어
기도성취하시고 무량보덕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주지김도후합장



대한불교 조계종 심원사 강원도 철원군 동송읍 상노리 72 · 전화 (033)455-3468

법회봉행일정

- 입재 및 지장원불전 기공식: 3월 24일(음력 2월 11일) 오전 9시 30분
- 초재: 3월 31일(음력 2월 18일) 오전 9시 30분
- 2재: 4월 7일(음력 2월 25일) 오전 9시 30분
- 3재: 4월 14일(음력 3월 2일) 오전 9시 30분
- 4재: 4월 21일(음력 3월 9일) 심원사 오테터 보개산 참배법회
서울 조계사 앞에서 오전 7시 출발(도시락 지참, 운동화 착용)
- 5재: 4월 28일(음력 3월 16일) 오전 9시 30분
- 6재: 5월 5일(음력 3월 23일) 오전 9시 30분
- 회향 및 지장원불전 상량식: 5월 12일(음력 4월 1일) 오전 9시 30분

※철야정진기도 - 매주 토요일 오후 7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버스운행

- 매주 토요일 오후 5시, 일요일 오전 7시 조계사 앞에서 심원사행 버스 출발

(예약문의 018-357-4406)

- 수요일 시외버스터미널에서 심원사행 버스 출발